

주의 세례 축일

기도서 239면 (A해)

제1독서 : 이사야 42,1-4. 6-7

제2독서 : 사 도 10,34-38

복 음 : 마 태 3,13-16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 오시는 것이 보였다”(마태 3,16).

강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이 대 권 신부

요즈음은 지상명령보다 천상명령의 아름다운 영광과 평화의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멜로디가 인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세례축일을 맞이하여 대망의 우리 전주교구 설정 반백년 문이 열리는 신년을 맞아 교형자매 여러분께 세배와 아울러 토끼선물을 드립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이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의 결단을 내려주는 참라! 우리 교구는 한국방인 교구 만아들이라 자랑들 하면서 모든 일에 거북이 걸음이 아니냐고? 그러나 쟁잡는 것이 매라는 격언과 같이 거북이가 경기 승리의 금메달인 모양! 요즈음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역법(逆法)이 많으셨고 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방법이 그러하듯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실망할 것은 없으며 샅대도 뿔대도 없이 서쪽나라로 가든, 동쪽나라로 가든, 거북이 걸음이면, 말든 예수님 복음 말씀만 실천하던 우리 선조 순교자들의 슬기로운 진리의 평화의 실천 증인을 따르는 평신자의 사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선구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강요하신 예수님, 역시 역법을 쓰셔서 하늘에서 평화상징, 비둘기 모양, 성령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오 3,17)고 메아리 쳐왔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려거든 첫째 목적에 대한 방법이, 그 조직에 대한 명령과 순명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말씀 “지금온 내가 하자는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마태오 3,15).

이제 주의 세례축일의 역법이 즉 아무 원죄도 본죄도 없으신 분이 자칭 수세하심을 목상하면서 죄 많은 역조 창생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 세례성사 및 계성사를 세워 주신 큰 은혜에 보답하는 참신한 인간, 감사하는 인간, 겸손한 인간, 자비의 인간, 제2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두 손 모아 성령께 약속 실천합니다. 아마 금강산뎌 역류법, 6천여 공사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요? 몇 천만 명보다 역조 창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성령의 평화법이! 영생은 은총의 죄류가! 전 인류를 영원한 피안으로! 영생의 길로! 불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고는 저 바다를 건널 길이 없으리라!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겠지 만 반대로 마음이 있는 곳에 영원한 보화가 있으리!

천애하는 우리 전주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제신자 교형자매 여러분! 9만 신자가 넘는 대 공동체! 금년 「성체와 교회공동체」 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됨을 성령께 약속하면서 반백년 교구 역사에 증인이 됩시다! (삼례 천주교회)



어느 교사의 해임 소식

새해 첫날부터 우울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서울 시교위는 30일 국교생들에게 부정적 의식을 주입하는 등 의식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 원당국교 교사 정영훈씨를 해임조치했다.」(조선일보 1월 1일자) 이어지는 기사는 정계처분 사유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지난 10월 국립묘지 참배중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묘지 안내원과 “독재자에게 학생들을 무조건 목베게 한다”며 언쟁을 벌였고... 하는 내용이다. 무언가 쟁잡니 가슴에 와 닿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중공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도 한다.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한다. 학생대표는 자신을 밝히며 동소평에게 공개장을 보내고, 관영신문을 불태우기도 했다. 학생들의 석방요구에 연행학생 24명이 풀려나고, 등소평으로부터 10일 내에 답신이 없으면 다른 행동을 하겠다는 경고에 어리둥절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자유를 말하며 관영신문을 불태운 것도 그러하다.

동아일보가 지난해를 점검하며 「격동 '86」 시리즈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 파문」을 다루었다. 그 기사에 의하면 29개 대학의 7백83명이 참여한 시국선언 파문으로 징계 시비가 일었고, 서울 등 중·고교의 일선교사 5백46명은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선언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그 후유증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인 셈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지난 연말 신문에 의하면, 서울 어느 중학교에서는 “수업중 현실비판 발언으로 서울시교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동료 교사의 구명 진정서에 서명한 교사들에게 「서명 취소 확인서」와 「서명 경위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한다.

새해 벽두부터 우울하기만 하다. 교사들이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순정이 산책

꾸르셀로 안내
남성 26차: 1월23일-26일
여성 23차: 2월20일-23일
접수마감: 1월13일까지



주님과 생활하고 싶은분은 본당신부와 상의하십시오

'87년 교구 사목지침(성체와 교회)

1987년이 밝았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구가 자치교구로 설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께서는 자치교구 50주년기념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하셨고 이에 준하여 1987년도 교구의 사목적 방향과 그 지침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금년 한 해를 이끌어갈 교구 사목지침을 이해하고 좋은 성과에 따른 보람과 기쁨을 얻기 위해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자.

1. 성체 안에 하나되는 교회공동체

- 가. 일치의 생활
 - 가) 지구 활성화(지구 사목협의회, 지구단위 행사)
 - 나) 본당 사목회 활성화(각 분과 활성화)
 - 다) 반모임 정착
 - 라) 친목행사 실시(지구, 본당, 구역)
- 나. 나눔의 생활
 - 가) 사회복지활동 강화
 - 나) 농촌교회 지원(교육 및 재정)

2. 자치교구 기념하는 신앙공동체

- 가. 선교활동의 심화
 - 가) 본당 신설
 - 나) 공의회 문헌(사목현장) 연수회 실시
 - 다) 심신단체 활성화
 - 라) 사회복음화(대사회 강연회 등)
- 나. 봉헌생활의 실천
 - 가) 50주년 기념 제반사업
 - 나) 자립의지 고취
 - 다) 기도와 희생의 생활화

□성서교실 ⑦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

예수가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이 본문(本文) 내용인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마태 3:16)라는 말은 마르코에 의하면 「하늘이 갈라지며」(스키조메누스, 마르 1:10)라는 말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정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는 말마디와 같은 말이다(마르 15:38 = 마태 27:51). 그때까지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門)이 이제 열려진 것이다. 이제 하늘(天)과 땅(地)의 직접적인 통교가 시작된 것이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요한 1:51).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므로써 우리는 안식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찢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었습니다」(히브 10:19~20). 참으로 이것은 우주창조 이래 획기적인 대(大)사건이던 것이다.

「비둘기 모양으로」(마태 3:16)라는 말을 놓고, 종래 많은 학자들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다는 기적을 부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주의 획기적인 대(大)사건에 즈음하여,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할 수 밖에 없었던 장엄한 장면을 우리는 믿는다. 성령강림 사건(행 2:3이하) 때는 성령의 내림이 「불혀」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예수의 세례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둘기」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예수의 원만한 성격과 그의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위대한 일(事)이 있었을 때, 하늘이 꼭 감응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가납상찬의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마태 17:1~8, 요한 12:28). 예수가 세례받기 전에는 보통 사람이었으나, 세례를 받은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노티즘의 입장은 잘못이다. 예수는 세례받기 전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마태 1:18).

☆ 축! 개원

김 이 비 인 후 과 의 원

김 형 겸(빌리버)

남원시 용성외과 앞

☎ 32-7117 · 32-7116

사조참치 전북대리점

초저온(-55℃)

무공해 참치!

횡감참치, 알, 내장

순정이슈퍼마켓

진 원 점(시릴로)

전화 3-3550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

(크리스티나)

이 승 렬(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교 구 소 식

1. 참사회 : 13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제2기 교사학교 개강 : 12일(월) 오전 10시, 교육관
3. 남성 제26차 푸르실료 : 1월 23일~26일
여성 제23차 푸르실료 : 2월 20일~23일
※ 참가 희망자는 본당신부와 상의바람, 접수마감-1월 13일
4.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13일 오전 10시~12시
① 교육내용-생식생리와 겸액관찰법 슬라이드 교육
② 대상-임신을 원하거나 피임을 원하시는 분(비혼자·부부 환영)
③ 장소-가톨릭센터 2층 행복한 가정운동(☎5098)
5. 소년푸리아 회의 : 11일 오후 1시30분(삼왕뽑기 행사있음)
대상-전주지구 소년푸리아 간부 참석바람
장소-전동성당 사제관 레지오 마리에 회의실
6. 인권을 위한 신·구교 합동기도회 : 18일 오후 3시, 장소-순창천주교회
강사-문정현 신부·방철호 목사
7. 1월중 레지아 회의 : 18일 오후 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회의실
참석대상-산하 평의회(썸시움·푸리아) 간부 및 직속pr 간부 전원
참고사항-박정일 주교님께서 참석하시어 훈화 및 표창 있음
※ 레지오 수첩-사무실 또는 성바오로 서원에서 구입 요망(권당 400원)
8. 설소자 피절 : 21일(수) 오후 2시~22일까지, 대상-중·고생, 회비-4천원
준비물-필기·세면도구,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 전주 숲정이→치명자산(오후 2시~4시)

일	요일	담당신부	일	요일	담당신부
11	일	김동준신부	18	일	김진소신부

(※ 시간변경 : 2시~4시)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92, 1~15 마태오 3, 1~12

♣ 잠깐!

☆ 줌, 읽자.

현대를 일컬어 흔히 정보시대니 매스컴시대라 한다. 오늘을 사는데 알아야 할 것도, 알려야 할 것도 그만큼 다양하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 알리는 데 늦으면 사는 데도 그만큼 뒤떨어진다.

여러 가지 정보매체 중에 인쇄매체는 각종 도서, 신문, 잡지 등을 말한다. 교구 홍보국에서는 가톨릭 신문과 교회서적 구독자 확보를 위해 지난 한 해동안 본당 방문과 안내에 애썼다. 그 결과 한 마디로 "너무 안읽는다."-9만 5천여 신자 중 가톨릭신문 구독자 450명-0.2%

전주 시내에 있는 성 바오로서원(성바오로 여자수도회)의 손님 대부분은 오히려 외인들이 이란다. 신자들이 그만큼 교회서적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다. 영적독서가 그토록 부족한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뭔가 줌 읽자.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이제 성년이다. 50주년, 50주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줌어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더 큰 성숙을 위해서 책도 줌 많이 보고 많이 읽자.

오늘, 교구장 사목교서가 숲정이 후보 별지로 나간다. 교구설정 50주년 기념해인 올해 동안의 우리 교구를 이끌어갈 교구장 교사이자. 흐트림없이 줌 자세히 읽고, 옮겨 이해하고 하느님이 주신 이 한 해 동안의 우리들의 신앙적 삶을 보람있게 가꾸자.

요십이(701) 김병오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로 투자안내를 해드립니다.

- 상가·점포·토지·임야
- 각종 업소

**호남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

오재천(안드레아)
☎ 0247-5604
(팔달로 롯데리아 앞)

신부화장·파마 전문
데레사 미용타운

전주시 중앙동
전주백화점 뒷골목
전화 6-6145
범 데레사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김종환치과 의원

신라당 ○
팔달로-
주덕은방 ○
김종환치과 의원

원장 김 종 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 옆 신라당 건너편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오로 서원 옆
☎ 72-5770
김 홍균(베드로)

수향불고기

※교우에 대해서 특별
우대함

전주우체국 앞
전주안과 뒷골목
2-2811
진 세시리아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동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인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금주는 증거주간입니다 : 사랑과 시간의 나눔, 불우한 이웃과 물질의 나눔 등을 통해 증거하는 생활을 합시다
 2. 대의원 릴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 사목회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꾸리아 릴레회 : 오늘 오후 3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예비자교리 안내 : 직장인반-매주(화) 저녁 7시30분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부녀반-매주(수) 오전 10시 중, 고생반-매주(토) 오후 5시 예비자 안내에 노력합시다
 5. 구정활동 위령미사 : 각 가정의 선영들을 위해 빠짐없이 미사 봉헌합시다
 6. 성전 건립기금 납입현황 공개 : 3년동안 여러분께서 내주신 신축금 개인별 납입상태를 공개합니다. 아직 완납하지 못하신 가정에서는 1월 25일까지 완납하세요
 7. 축! 꾸르실리스타 탄생 : 노송남(안드레아) 형제 축하드립니다
 8. 중·고학생 동계피정 : 1월 14일-15일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1인당 3천원
 9. 중·고학생 동계특별교리 : 16일-21일까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 금주전례 : 해설-박중주, 독서-봉헌-손만술 부부, 신자기도-최재인 부부, 촛불봉헌-안계홍 부부 차주전례 : 해설-이종관, 독서-봉헌-김용기 부부, 신자기도-임영빈 부부, 촛불봉헌-백중엽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94,920원 교무금 : 733,000원
신축금 : 654,000원 아파트 봉헌금 : 215,000원
교무금 : 392,000원 신축금 : 3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1. 예비자교리 : 수녀님반-1월 11일 공식미사 후 신부님반-1월 15일 저녁미사 후
 2.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3. 자모회 : 15일 오전 10시
 4. 성우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중·고학생회 정기총회 : 18일 오후 2시
 6. 여사무원 모집 : 자격-신자, 여성 출신, 주산·부기·타자 3급이상 자격증 소유자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생활기록부 사본 1통, 계기능 자격증사본 1통씩, 이력서(사진부착·자필) 1통, 주민등록등본·신원증명서 1통씩 제출마감 : 87년 1월 20일, 제출처 : 복자성당 사무실 ※ 서류 심사후 면접을 개별 통지함
 7.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공사현금 3만원-익명·방우현, 1만5천원-이길용, 1만원-김중현·이상철, 5천원-김봉래, 계-10만원 누계-35,607,000원
 8. 축! 결혼 : 1월 17일 오후 1시 신랑-김중기군, 신부-배미영(루치아)양
 9. 금주 성당청소 : 월-평화의 모후pr, 토-황금궁전pr 금주전례 : 해설-김인석, 독서-①유경수 ②정진협 봉헌-안운정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조성호 ②강기연 봉헌-정진협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40,580원 교무금 : 632,700원
미수교무금 : 272,900원

(삼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1. 제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병자성사 : 14일(수)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
3. 청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50주년 현금 : 2만5천원-최경림·양재철, 2만원-안복성·황상호·김중석, 1만5천원-박봉도·유준근, 1만원-이중철·강문우·오귀남·박부영·남창우·박복동·현복선·송봉덕, 1만3천원-안운기, 8천원-김홍곤,

- 5천원-홍주봉
5. 축! 결혼 : 신랑-김영신, 신부-황해순
오늘 오후 1시30분, 전동성당
 6. 감사 : 순정이 은인-이귀남1구과
- 지난주 봉헌금 : 164,520원 교무금 : 53,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항
사무실 "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2-2276

1. 반장님 릴레회 : 18일로 연기하오니 착오없기 바람
 2. 사목회 : 오늘 오후 3시 사목회 임원들께서는 전원 참석바람
 3. 프란치스코 혈제회 : 오늘 오후 1시
 4. 제대회 첫모임 : 14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첫모임이 있으니 제대회에 가입하신 분은 참석바랍니다
 5. 감사 : 평화동성당 보좌용 녹색제의 1벌 기증-평화동 영제자 일동
 6. 금주전례
본 당 : 해설-김배근, 독서-①김한기 ②장현주 봉헌-제8반장 가정
평화동 : 해설-함문광, 독서-①박병환 ②김나섭 봉헌-제4반장 가정
- 차주전례
본 당 : 해설-고현주, 독서-①유용산 ②강기호 봉헌-제10반
평화동 : 해설-문치구, 독서-①강수중 ②오수환 봉헌-제5반장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본당-375,410원 평화동-130,100원
계-505,51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 사무실 83-5085번

1. 사목회 : 17일, 저녁미사 후
 2. 보좌신부 꾸르실리로 교육 : 9월~12월 신자들의 많은 기도바람
꾸르실리스타 영적예물-미사·영성체·주모경·묵주기도·활살기구 각 1번 이상
 3. 레지아 회합 : 다음주 오후 2시
 4. 어린이양육 모후 : 소년꾸리아 회의-오늘 오후1시30분 (삼왕뽕기 행사)
 5. 성탄영세자 사진 찾아가세요 : 성당 정문앞 삼천리사진관
 6. 주일학교 자모회 정기총회 : 13일 오전 10시
 7. 주일학교 교리교사 정기총회 : 17일 오후3시(교무실)
 8. 자모회 : 오늘 공식미사 후
 9.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성인반)-1월 2주부터 시작
(학생반)-1월 2주부터 시작
수요일(직장인)-2월 1주부터 시작
 10. 86년도 교무금 미납하신 분은 속히 내주세요
 11. 차주전례
아침미사 : 해설-오경미, 독서-①최정식 ②이주영
8시 30분 : 해설-최윤정, 독서-①손휘부 ②유공수
공식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이영대 ②고수창
- 지난주 봉헌금 : 1,027,410원 교무금 : 562,000원
평화의날 헌금 : 1,344,91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초등부 예비자교리 : 86년 성탄영세자 자녀 포함) 대상-국민학교 3~6학년
일시-13일부터(매주 화~금 오후 2시)
 2. 성탄영세자 자녀들의 유아세례 대상-유아·국민학교 2학년, 일시-25일 9시미사 후 ※ 24일까지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람
 3. 중·고학생 특별교리 및 피정
일시-20일~25일, 장소-지하성당
 4. 본당 올드레아 : 12일 오후 7시
 5. 신임 교리교사 임명회 : 회장-윤양식, 부회장-박근표 총무-박소형 ※퇴임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모임 : 오늘-클라라회, 차주-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 734,089원 교무금 : 657,000원
성마리아 대축일헌금 : 420,350원